

Samil Insight

2024 Mid-Year Update

Global M&A Industry Trends: “Get better”

August 2024

삼일PwC경영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민준선 대표
삼일PwC Deal 부문

들어가며

올해 초 삼일PwC는 지난 2년 간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인수합병(M&A) 활동이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8월에 접어든 지금, 연초 기대보다 회복 시기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M&A 시장의 경우, 미국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더디게 회복했습니다.

다만 시장을 둘러싼 불안 요소는 서서히 줄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해지고, 각국의 선거 일정이 마무리되면 M&A는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가 수출 회복과 함께 상향되면서 향후 시장에 대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상반기 M&A 시장 평가와 함께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 및 업종별 투자전략을 담았습니다. M&A를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PwC 고객과 독자에게 풍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Agenda



Executive Summary **4**

2024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8**

2024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17**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하반기 Outlook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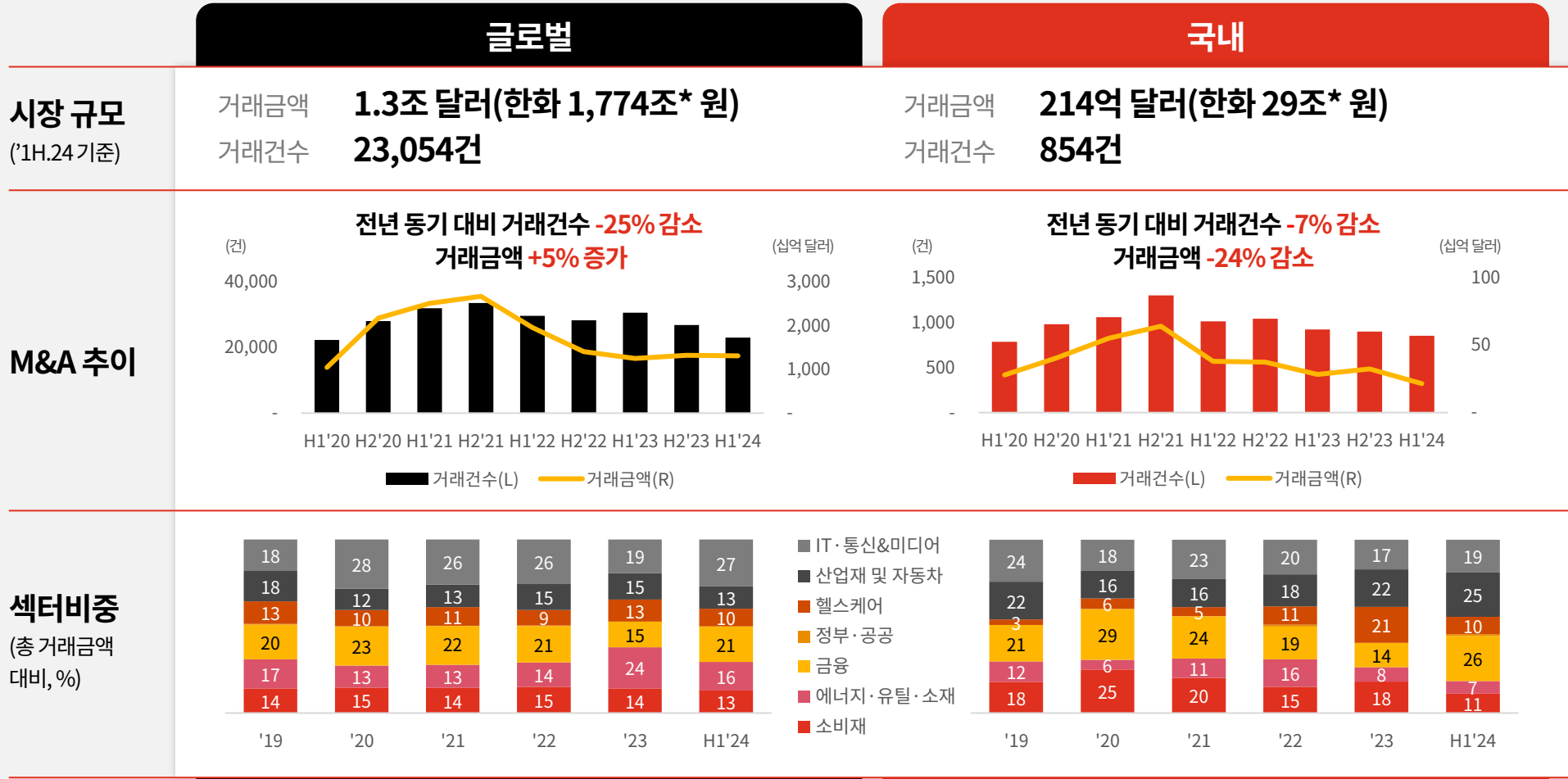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Mid-Year Update

Executive Summary



2024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 (글로벌)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 -25% 감소, 거래금액은 +5% 증가. 1H'23을 저점으로 거래금액 증가 추세 → 향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점증
- (국내) 거래건수 및 금액 모두 감소(전년 동기 대비 각각 -7%, -24%)하며 침체 지속. 메가딜 부재로 글로벌 시장 대비 금액 측면 부진



*환율: 1352원/달러 적용('24년 상반기 평균 기준)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4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매크로 변수 동향

자본시장을 둘러싼 주요 매크로 변수의 영향도 감소 → 연말로 갈수록 각국 선거 마무리 & 금리 인하 진행되며 M&A 환경 개선

| | | |
|-----------|-----------|---|
| 금리 | 점차 영향도 감소 | •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금리 인하 전망 |
| Valuation | 부정적 영향 지속 | • 매수자-매도자간 Valuation 격차 지속 → M&A 활성화의 제약 요인 |
| 선거 | 점차 영향도 감소 | • 11월 미국 대선을 끝으로 주요국 선거 마무리되며 정치 불확실성 제거 |
| 지정학 리스크 | 부정적 영향 지속 | • 러-우 전쟁, 중동분쟁 장기화 조짐. 미-중 무역마찰 지속 |

M&A 시장 전망

'22년부터 진행된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M&A 시장 점진적 회복 전망

| | |
|------------------|---|
| Exit 압력 증가 | • PE 포트폴리오 내 절반 이상이 보유기간 4년 이상 → 투자자들의 Exit 요구 증가 (PE의 평균 투자기간: 4~5년) |
| 자금시장 경색 완화 | • 하이일드 채권, 레버리지 대출 등 고위험군의 자금 조달 증가 |
| 사모자본 성장 지속 | • 사모자본 운용자산 13.3조 달러.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지난 5개년 CAGR +8% |
| 에너지 전환 지속 | • 탄소중립 목표 달성위한 에너지 전환 지속 & 각국 정부의 투자 지원 |
| Biz 모델 변화 필요성 증대 | • 신기술(AI, 자동화, 미래차, 바이오 등) 선점을 위한 노력 vs.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자원 마련 |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하반기 Outlook

소비재

포트폴리오 재검토는 소비재 업종의 핵심 관심 사항.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분할과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지속될 것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리소스 확보 → 신기술, ESG, 공급망,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지속
- 동일 업종 내 합병 및 연관 업종 인수: 규모의 경제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업종 내 합병 & 인접 카테고리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 모색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지정학적 위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규제 및 인센티브, ESG 중요성 부각 → M&A 관심 지속

- 정부 지원·규제: 각국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책(ex. 미국 IRA, 유럽 그린딜) → 저탄소 인프라 부문(탄소포집, 전기화 등) 투자 증가
- 공급망 안정성 추구: 공급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에너지 수요 확보를 위해 업체간 협력 증가

금융

고금리·지정학적 긴장으로 금융 Deal 부진하지만, 디지털·ESG·인재확보에 대한 압력 가중 → 매크로 환경 개선시 M&A 큰 폭 회복 전망

- 구조조정: 자본시장 안정성 회복 & 은행 자본력 강화에 따라, 부실자산(NPL) 및 비핵심자산 매각은 연초 예상 대비 감소 전망
- 디지털 혁신: 고객 서비스 부문에 AI 접목,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 사이버 보안, 디지털 기반 운영 효율성 증대에 관심
- ESG: 투자 결정시 ESG 요소 반영 → 특정 분야에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포트폴리오 전반의 리스크 요소를 재검토할 가능성 높음

헬스케어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비핵심 사업부 매각 + 혁신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 대형 Deal보다는 중소형 위주의 Deal에 주목

-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특허 만료에 대비하여, 제약사들은 자체적 R&D 뿐 아니라 바이오테크 인수에도 적극적
- 세분화된 의료 서비스 분야 관심: 개인 클리닉, 치과, 동물병원, 시험관 아기, 요양원 등의 세분화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모펀드의 관심

산업재 및 자동차

디지털 혁신, 탄소 감축, 비핵심 자산 매각에 관심. 하반기로 갈수록 선거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산업재 부문 투자 재개 전망

- 신기술 투자: AI, 자동화, 로봇, 커넥티드, 전기차 관련 기술 투자
- 업종 내 합병: 거시경제 및 업종별 특수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간 합병 증가

IT·통신&미디어

생성형 AI 및 신기술의 발전,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 여력, Deal 수요 누적 등으로 M&A 시장 점진적 회복 예상

- 매물 적체 해소: 경기침체 우려 완화, 인플레이션 안정화, 대규모 DryPowder(미집행 투자약정금)로 M&A 활동 증가
- AI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게 진행되나 자체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분위기로,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M&A 사례는 많지 않을 것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Mid-Year Update

2024년 상반기 M&A 시장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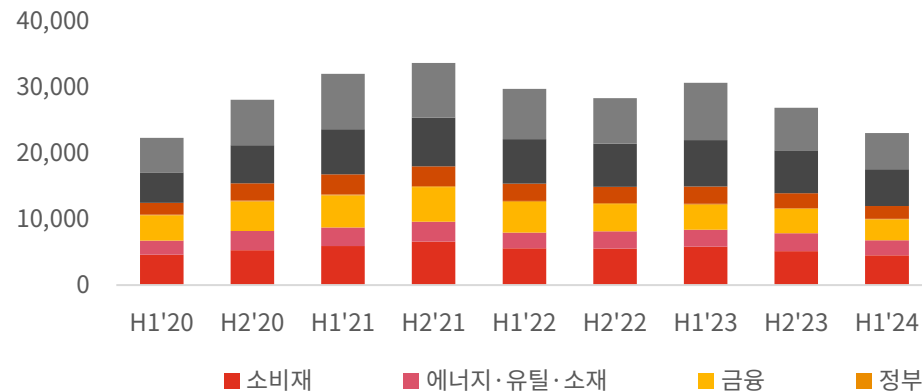
2024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업종별

- '24년 상반기 글로벌 M&A 시장은 거래건수 23,054건(YoY -25%), 금액 1.3조 달러(YoY +5%) 기록 → 거래건수 감소는 지속되나, 거래금액은 회복 추세**
 - '24년 초 금리 하락 기대감으로 M&A시장 반등이 예상되었으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각국 중앙은행의 고금리 기조 유지되며 Deal 침체 지속
 - 다만, 1H'23부터 거래금액 감소가 멈추며, 바닥 다지기 양상 → 향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
-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IT·통신 & 미디어(+54%), 금융(+29%)은 증가 vs 헬스케어(-24%), 산업재 및 자동차(-19%),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15%), 소비재(-4%)는 감소**
 - IT·통신 & 미디어:** 고금리와 각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로 Deal 감소 추세가 지속됐으나, 최근 기업들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던 기간을 끝내고 Deal을 재개하는 양상. 반도체·AI·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메가딜 성사되며, 1H'24 M&A 시장을 주도
 - 헬스케어:** 제약사들의 특허만료 압박에 따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약물 발굴 필요 → 대규모 Deal 보다는 다수의 소형 Deal 선호하는 추세로 거래금액 감소
 - 산업재 및 자동차,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자동화·넷제로 등에 대한 관심 지속되나, 선거 리스크(특히 미국 대선)가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집행을 미루는 움직임

글로벌 M&A 거래건수 및 금액(Industry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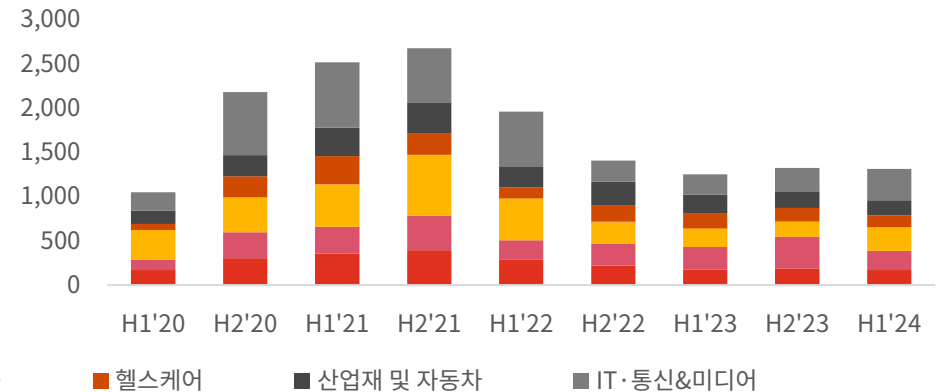
거래건수

(건)



거래금액

(십억 달러)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4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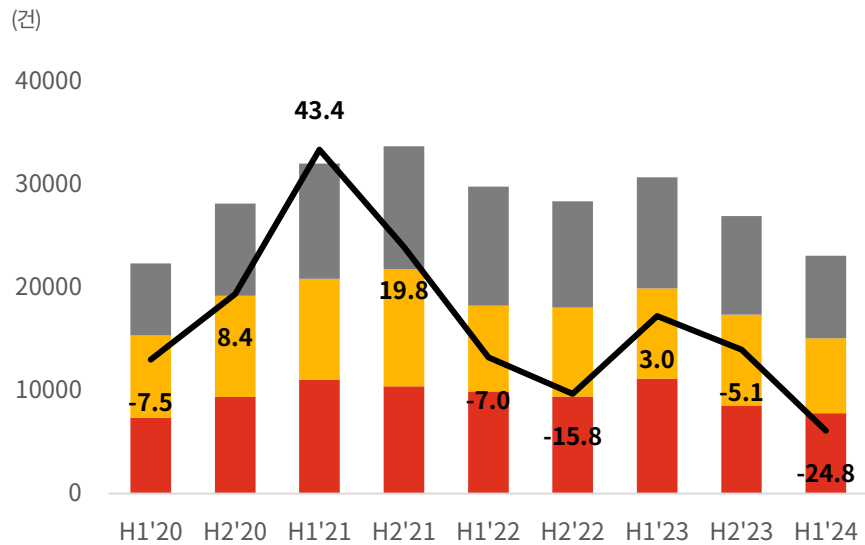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전 지역에서 거래건수 감소했으나 거래금액은 지역별 상이

- **미주:** 거래건수는 부진(YoY-30%)했으나, 다수의 메가딜*로 거래금액 증가(YoY+22%). 또한, 직전 반기 대비로도 거래금액이 증가(+7%)하면서 시장 회복 가능성 ↑ '22년 이후 지속된 M&A 부진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보다 양호한 상황 지속되며 전체 시장 내 미주 비중 증가('20년: 45% → '22년: 48% → 1H'24: 58% (거래금액 기준))
- **유럽·중동·아프리카:** 거래건수는 크게 감소(YoY-26%) 하였으나, 메가딜 영향으로 거래금액은 증가(YoY+10%)
- **아시아태평양:** 1H'24 메가딜이 전무. 전년대비 거래건수(-17%), 거래금액(-32%) 둘 다 큰 감소세 보이며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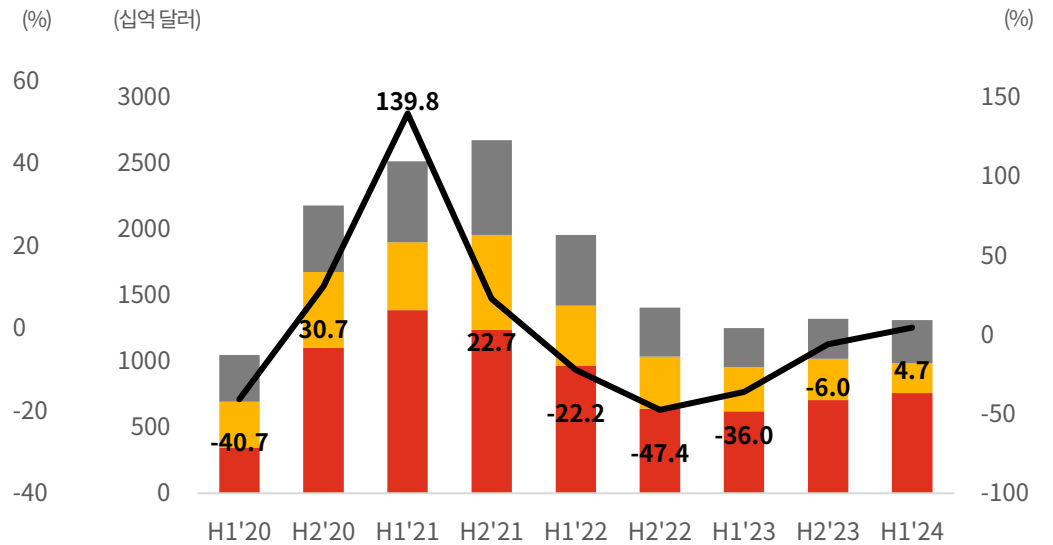
* 메가딜: 거래금액 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M&A 거래건수 및 금액(지역별)

거래건수



거래금액





■ 미주 (L) ■ 아시아태평양 (L) ■ 유럽·중동·아프리카 (L) — YoY growth (R)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4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글로벌 Top 10 Deal – 미국 주도, 금융·Tech 강세

- '24년 상반기 상위 10개 Deal은 전부 미국에서 실행.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전부 미국 기업
- 산업의 경우 금융, IT·통신&미디어 섹터가 강세. 1H'24 상위 10개 Deal 중 해당 섹터가 3개씩 포함

Top 10 Global Deals,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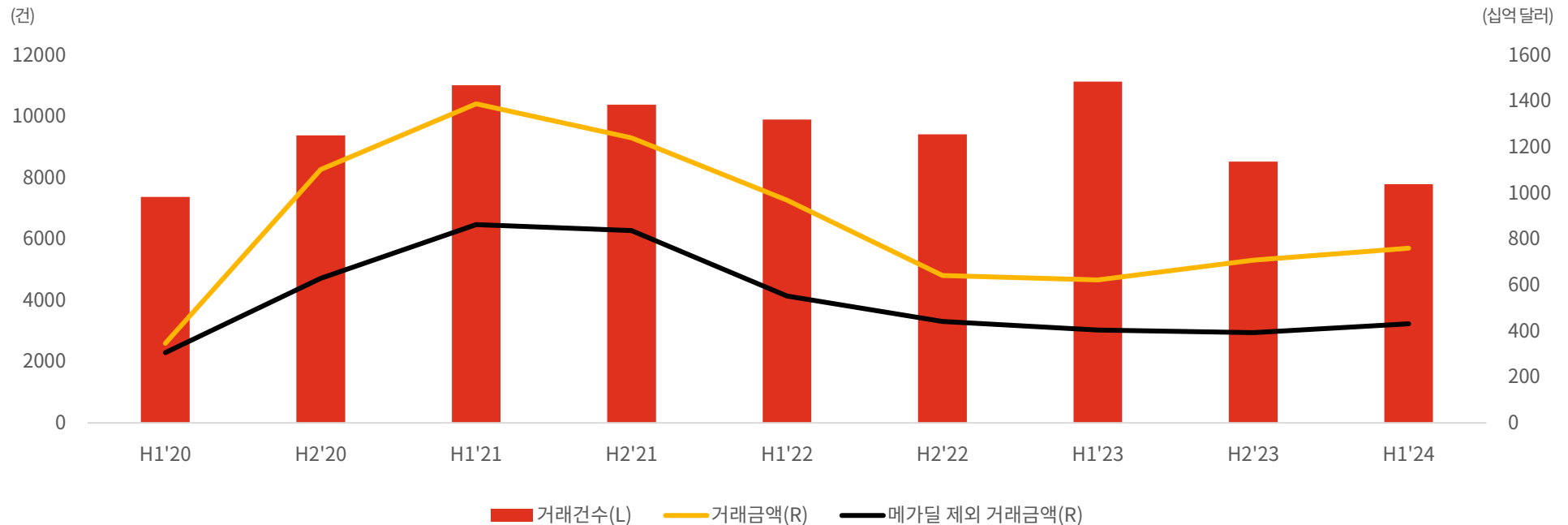
| | Target | Buyer | Sector | Deal size(US\$bn) |
|----|--|--|--|--|
| 1 |  Discover Financial Services |  Capital One Financial Corp | Financial Services | 35.3  |
| 2 |  ANSYS Inc |  Synopsys Inc |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 32.5  |
| 3 |  Paramount Global |  Investor Group |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 29.3  |
| 4 |  Endeavor Energy Resources LP |  Diamondback Energy Inc | Energy, Utilities and Resources | 25.8  |
| 5 |  SRS Distribution Inc |  Home Depot Inc | Consumer Markets | 18.3  |
| 6 |  Marathon Oil Corp |  ConocoPhillips | Energy, Utilities and Resources | 17.2  |
| 7 |  Shockwave Medical Inc |  Johnson & Johnson | Health Industries | 14.1  |
| 8 |  Juniper Networks Inc |  Hewlett Packard Enterprise Co |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 13.6  |
| 9 |  Truist Insurance Holdings LLC |  Trident Butterfly Investor Inc | Financial Services | 12.6  |
| 10 |  Global Infrastructure Management LLC |  BlackRock Inc | Financial Services | 12.5  |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2024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 미주

- ’24년 상반기 미주 지역 M&A 시장은 거래건수 7,784건(YoY -30%), 거래금액 7,600억 달러(YoY +22%) 기록**
 - 거래건수는 글로벌 평균(YoY -25%)과 유사하게 감소했으나, 거래금액은 메가딜 증가로 인해 글로벌 평균(YoY +5%)을 크게 상회하며 증가
 - 글로벌 시장 중 가장 양호한 상황 지속되며, M&A 부문에서 미주의 영향력 증대 (전체 거래 금액 내 미주 비중: ’20년: 45% → ’22년: 48% → 1H’24: 58%)
- 고금리·지정학적 불안·대선 등 불확실성이 혼재된 상황에서도 금융, IT·통신&미디어 섹터를 중심으로 메가딜 회복**
 - ’24년 상반기 미주 지역의 메가딜은 역대 최고의 M&A 호황기였던 ’21년만큼 활발하게 진행
 - 메가딜 제외시에도 1H’23 이후 거래금액 감소가 멈춘 상황 → 바닥 다지기라는 인식 확산과 함께 향후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점증

미주 지역 M&A 거래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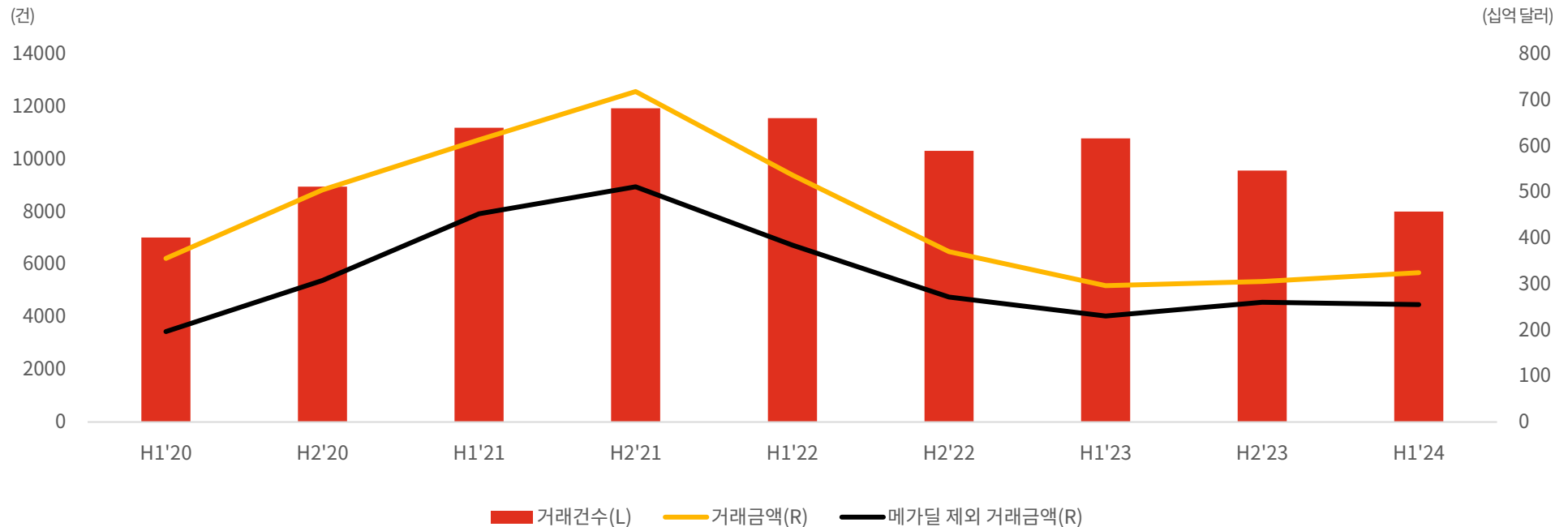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4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 유럽·중동·아프리카

- '24년 상반기 유럽·중동·아프리카 M&A 시장은 거래건수 7,994건(YoY -26%), 거래금액 3,240억 달러(YoY +10%) 기록
 - 건수와 금액 모두 글로벌 평균(각각 YoY -25%, +5%)과 유사한 움직임
 - 고금리와 러-우 전쟁, 이-팔 분쟁 등으로 비우호적 시장 상황 지속되고 있으나, 거래금액이 증가한 점이 고무적
- '21년 이후 메가딜이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24년 상반기에는 회복 움직임 (메가딜 건수: '23년 전체 9건 → '24년 상반기 8건)
 - 미주와 유사하게 1H'23을 저점으로 거래금액 감소가 멈추며, 바닥 다지기 양상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
 - 또한, 메가딜을 제외한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 거래금액 증가(+1%)하며 시장이 점차 회복 중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M&A 거래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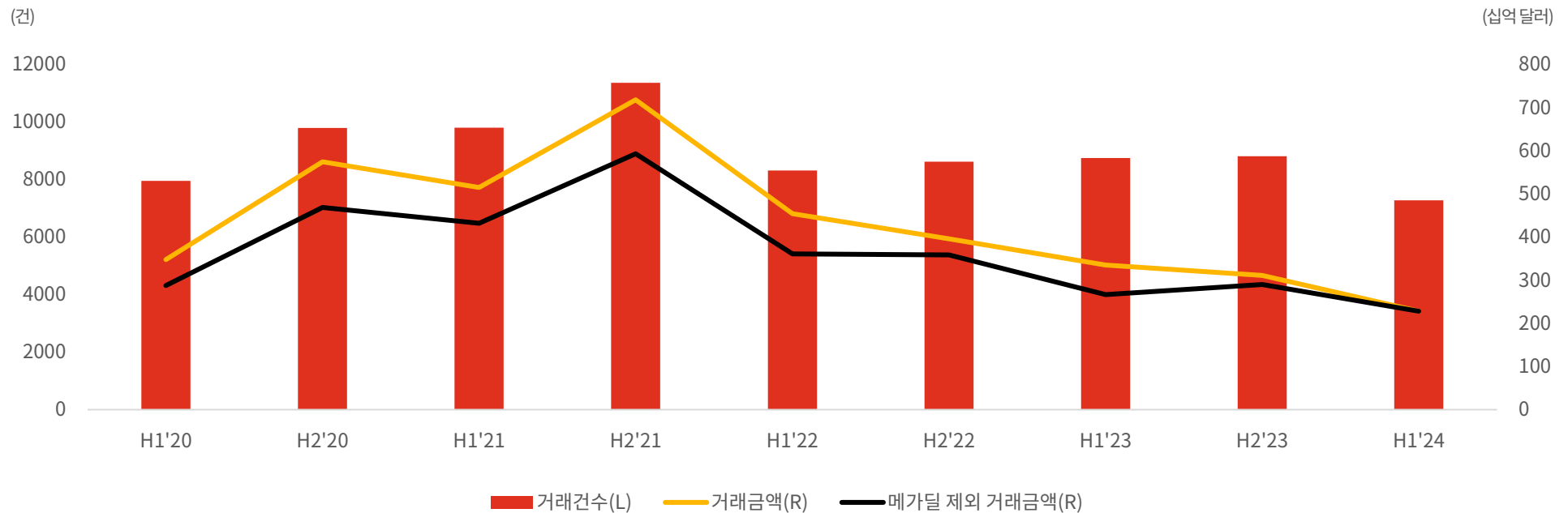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4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 아시아태평양

- ’24년 상반기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시장은 거래건수 7,276건(YoY -17%), 거래금액 2,280억 달러(YoY -32%) 기록. 글로벌에서 가장 저조한 실적**
 - 글로벌 평균(건수 및 금액 각각 YoY -25%, YoY +5%) 대비 건수는 선방했으나, 금액은 저조. 이는 메가딜 부재에 기인(1H'23: 5건 → 1H'24: 0건)
 - 팬데믹 이전인 1H'19와 비교시에도 건수와 금액 각각 -12%, -37% 감소한 기록을 보이며, 타 지역 대비 더딘 회복세
- 지역별로는 중국이 가장 저조, 인도는 상대적으로 양호**
 - 중국은 전년동기 대비 거래건수 -19% 감소. 미-중 무역분쟁 지속에 따라 투자자들의 중국 투자 선호도 감소
 - 인도는 거래건수가 -17% 감소했지만 거래금액은 +18% 증가하며 안정세 유지. 다만, 메가딜 부재의 여파로 평균 거래규모는 4,100만 달러에 그치며 지난 5년 평균치인 8,100만 달러에 크게 미달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거래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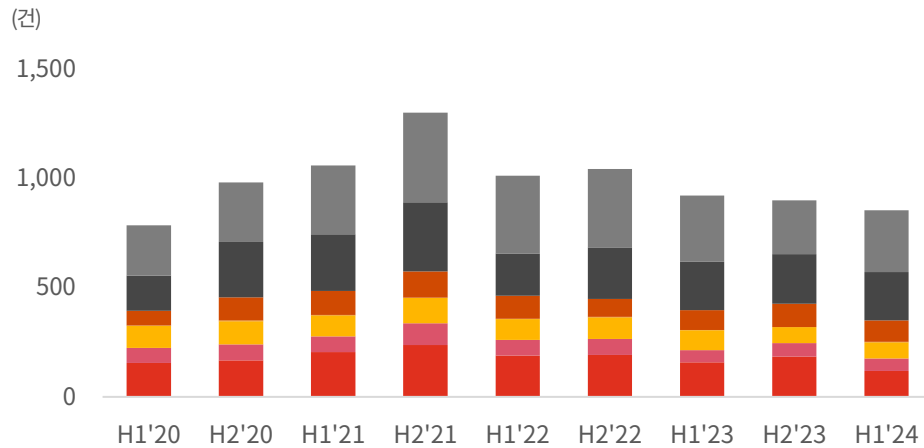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4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지역별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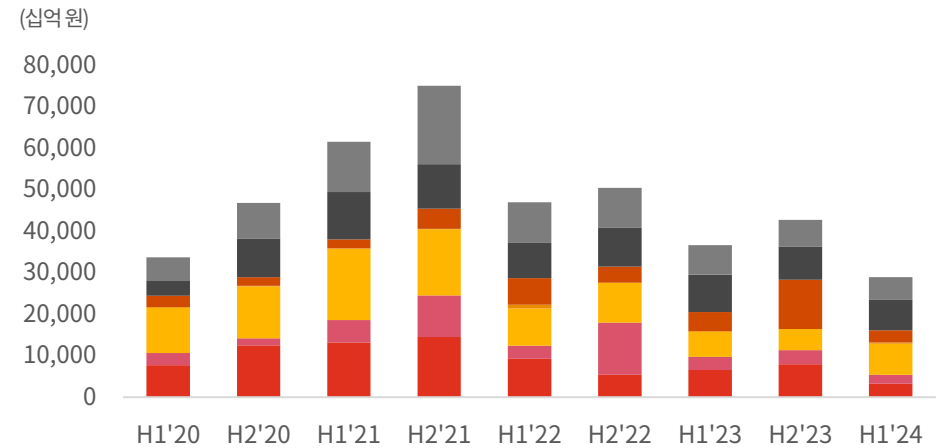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국내 시장은 거래건수 854건(YoY -7%), 거래금액 29조 원(YoY -24%)으로 글로벌(각각 -25%, +5%)과 비교시 건수는 선방, 금액은 부진**
 - 팬데믹 이전인 1H’19와 비교시에도 거래건수는 증가(+3%) 한 반면, 금액은 감소(-37%)하여 메가딜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판단
- 업종별로는 금융(+18%) 제외 전 영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거래금액 감소. 소비재(-52%), 헬스케어(-40%), 에너지·유틸리티·소재(-36%), IT·통신 & 미디어(-26%), 산업재 및 자동차(-22%) 순으로 부진**
 - 금융부문 M&A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MBK-지오영홀딩스 인수(2조 원), KCC-MOM홀딩스 인수(0.8조 원)에 기인 해당 Deal의 특성* 반영하여 제외 시, 금융 M&A 거래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 (*보고서 16p 참조)
 - 산업재·자동차부문은 한국타이어-한온시스템 인수(1.7조 원), 현대차-모셔널AD 추가 지분 투자(1.6조 원) 등으로 타 섹터 대비 양호한 실적
 - 소비재는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로 M&A 시장도 위축. 음식료·유통·호텔/레저 등 전 영역에서 부진

국내 M&A 거래건수 및 금액: Industry별

거래건수



거래금액



























■ 소비재 ■ 에너지·유틸·소재 ■ 금융 ■ 정부·공공 ■ 헬스케어 ■ 산업재 및 자동차 ■ IT·통신&미디어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2024년 상반기 M&A 시장 점검: 한국 Top 10 Deal – 산업재 및 자동차 업종 강세

- Top 10 Deal에서 강세를 보인 업종은 산업재 및 자동차
 - 미래차·로봇 등의 미래 기술 투자(2위 한온시스템, 8, 9위 모셔널) &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로 방산 부문 관심(3위 오스탈)

Top 10 Global Deals, 2023

| | Target | Buyer | Sector | Deal size(US\$mn) |
|----|--|--|------------------------|---|
| 1 |  Cho Sunhae Gy Holdings Co Ltd* |  MBK Partners LLC | Financial Services | 1,419  |
| 2 |  Hanon Systems Co Ltd |  Hankook Tire & Technology Co Ltd | Industrials & Services | 1,001  |
| 3 |  Austal Ltd |  Hanwha Ocean Co Ltd | Industrials & Services | 662  |
| 4 |  MOM Holding Co* |  KCC Corp | Financial Services | 599  |
| 5 |  SK Rent A Car Co Ltd |  Affinity Equity Partners (S) Pte Ltd | Consumer Markets | 591  |
| 6 |  Mirae Asset Maps General Private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No 1-ARC Place |  Koramco Reits Management & Trust Co Ltd | Financial Services | 589  |
| 7 |  Jeisys Medical Inc |  Syracuse Subco Inc | Health Industries | 525  |
| 8 |  Motional AD Inc |  Investor Group | Industrials & Services | 475  |
| 9 |  Motional AD Inc |  Investor Group | Industrials & Services | 448  |
| 10 |  Cougar In The Zoo PFV Co Ltd-Cupang Logistic Center |  IGIS Income & Growth No 2-4 General Private Placement Real Estate Master Investment Co | Financial Services | 432  |

- * 일부 Deal은 사업부의 본질 반영 시 섹터 변경이 적합하나, 글로벌 데이터와의 정합성을 위해 기존 분류 유지
- 1위 지오영홀딩스: 해당 기업의 주력사업이 의약품 유통인 점 고려시 헬스케어 구분이 적절
 - 4위 MOM홀딩스: 주력이 실리콘 제조로,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부문 M&A로 보는 것이 적절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Mid-Year Update

2024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M&A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변수 동향

- '24년 초 Deal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예상보다 늦어지는 금리 인하로 인해 투자심리 악화
- '22년부터 M&A 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지만, 자본시장을 둘러싼 주요 매크로 변수들의 영향도가 감소하는 중
→ 연말로 갈수록 각국의 정치 이벤트(선거)가 마무리되고, 미 연준 금리 인하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되며 M&A 제반 환경 개선

M&A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변수

| | 현황 및 전망 | M&A 시장에서의 영향 |
|--------------------|---|-----------------|
| 1 금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부터 진행된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 최근 EU, 캐나다 등에서 기준금리 인하되며,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감 형성 | 부정적 → 점차 영향도 감소 |
| 2 Valuatio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수자-매도자간 Valuation 격차가 큰 상황 ▪ 고금리 상황에서도 신기술(AI, 바이오, 로봇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高 Valuation 형성 → M&A 활성화의 제약 요인 | 부정적 영향 지속 |
| 3 선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선거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연기 ▪ 11월 미국 대선을 끝으로 주요국 선거 마무리되며 불확실성 제거 | 부정적 → 점차 영향도 감소 |
| 4 지정학적 리스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우 전쟁, 중동분쟁 장기화 조짐 ▪ 미-중 무역전쟁 또한 지속되며,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부정적 영향 지속 |

2024년 하반기 M&A 시장 전망

1 Exit 압력 증가

- PE 포트폴리오 내 절반 이상의 기업이 보유기간 4년 이상 → Exit에 대한 압력 증가 (PE의 평균 투자기간: 4~5년)
- IPO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 M&A를 통한 수익실현 욕구 증대

2 자금시장 경색 완화

- 하이일드 채권, 레버리지 대출 등 위험도 높은 자금에 대한 시장 경색 완화

※ 고위험 자금 조달 현황
(미국/유럽)

| | '23년 연간 | '24년 반기 |
|---------|-----------|-----------|
| 하이일드 채권 | 2,230억 달러 | 2,010억 달러 |
| 레버리지 대출 | 3,790억 달러 | 3,590억 달러 |

3 사모자본 성장 지속

- M&A 시장 내 사모자본(Private Capital)의 영향력 증가: '22년 20.6% → '24.1Q 24.1% (거래금액 기준)
- 사모자본 운용자산 13.3조 달러.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고성장 지속(5개년 CAGR 8%)

4 에너지 전환 지속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지속
-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에너지 산업의 특성 상, 사모자본이 투자의 중심이 될 것

5 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성 증대

- 비핵심 자산 매각 & 신기술(AI, 자동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 지속
- 중금리 지속에 따라 한계기업 구조조정 증가



**M&A 시장
점진적 회복**

주요 투자 주체별 전망

기업

- '22년부터 지속된 금리상승으로, 레버리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PE 대비, 풍부한 현금을 보유한 기업이 M&A의 주역으로 부상 (Deal 점유율 64%)
-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에 관심
 -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 → 기업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신시장 개척 필요
 - 지정학적 이슈(공급망), AI 중심의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혁신 요구 증가
 - 인수자금 마련하기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 지속

PE

- 기존 포트폴리오 매각에 대한 압박 증가 + 자금시장 경색 완화 → Deal 활성화 전망
 - 글로벌 PE가 보유한 기업 포트폴리오는 2.7만개에 이르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최소 4년 이상 보유 → EXIT 움직임 가속화
 - 신디케이트론 재개되며 자금조달 환경 개선
- PE 시장의 구조적 변화 진행 중이며, 향후 자본시장 내 PE의 영향력 증대 전망
 - Player: 대형사 위주로 시장 개편 중. 소형사들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중견 운용사들은 틈새 분야를 전문화하거나 전략적 제휴 모색 중
 - 투자자: 사모자본 시장 내 개인 투자자 비중 증가
 - 사모펀드는 개인투자자에게 폐쇄적인 구조였으나, 일부 대형 PE들이 개인 전용 사모펀드 출시
 - 블랙스톤: 리테일 자산 (현재) 2천억 달러 → (향후) 5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KKR: 신규 자본조달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 (현재) 10~20% → (향후) 30~50% 로 예상

부동산 (Real Estate)

- 높은 자본비용으로 인해 '24년 상반기까지의 M&A 활동은 제한적이었으나, 향후 금리 인하와 함께 시장 환경 개선 전망
 - 부동산 부문 주요 테마는 ① 부실자산 처분 방식 ② 포트폴리오 구성 변화
 - 부실자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얻은 교훈(성급한 자산 매각으로 인한 손실 증대)으로 인해, 대출기관은 부실채권에 대해 차압보다는 솔루션에 기반한 리파이낸싱 진행 → 부실자산 매수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 포트폴리오 구성: 4차 산업혁명 및 주택 부족 영향으로 데이터센터, 학생용 주거, 렌트 주거*에 대한 투자 수요 증가
- *'24.1Q 기준, 해당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1% 증가 & 해당 기간 총 거래의 70% 차지

사
모
자
본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4 Mid-Year Update

산업별 M&A Trend 및 2024년 하반기 Outl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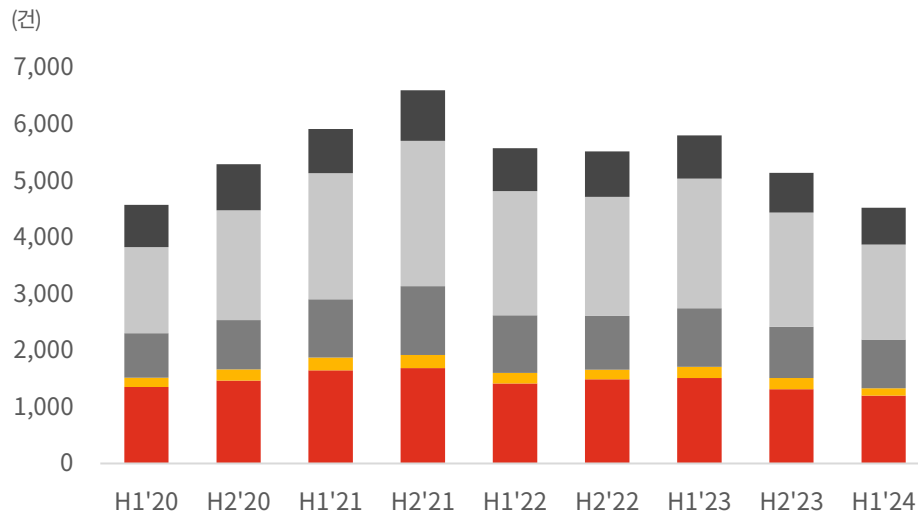


[① 소비자재] 2024년 상반기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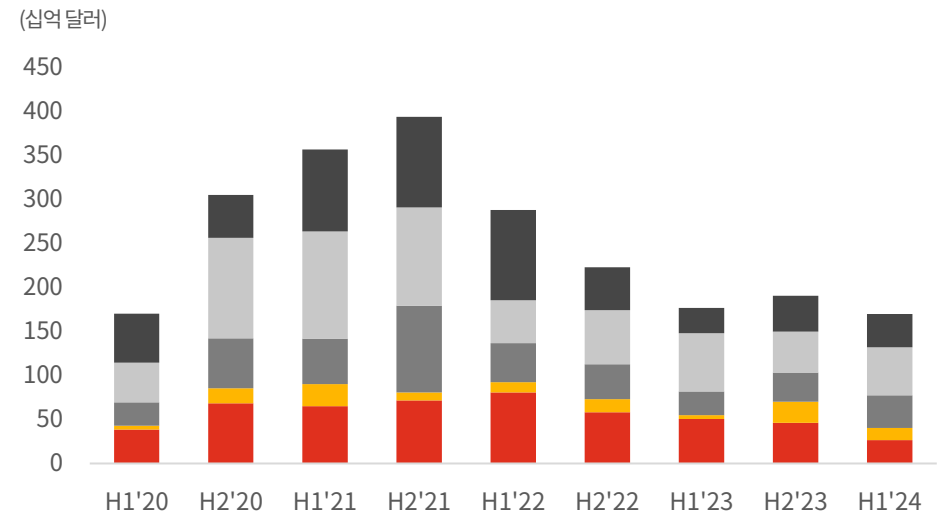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글로벌 소비자재 M&A 거래건수는 4,520건(YoY -22%), 거래금액은 1,698억 달러(YoY -4%)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25%, +5%) 대비 거래금액이 다소 저조한 편이며, 팬데믹 이전인 1H'19년와 비교시에도 거래건수와 금액 각각 -16%, -25% 감소한 수치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소비자재 (-48%), 리테일(-17%) 부진 vs. 제지·포장(+212%), 호텔·레저(+37%), 운송(+31%) 양호
 - 제지·포장은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가 감소(-17%)했으나, 금액은 큰 폭 증가(+212%). 이는 인터내셔널페이퍼- DS Smith 인수(7.2억 달러), 클리어워터페이퍼- 오거스타 판지 사업부 인수(7억 달러) 등의 메가딜 영향
 - 소비자재·리테일은 홈디포-SRS 인수(183억 달러)라는 메가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소비자 구매여력 감소로 투자심리 위축

소비자재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건수



거래금액



■ 소비자재 ■ 제지·포장 ■ 호텔·레저 ■ 리테일 ■ 운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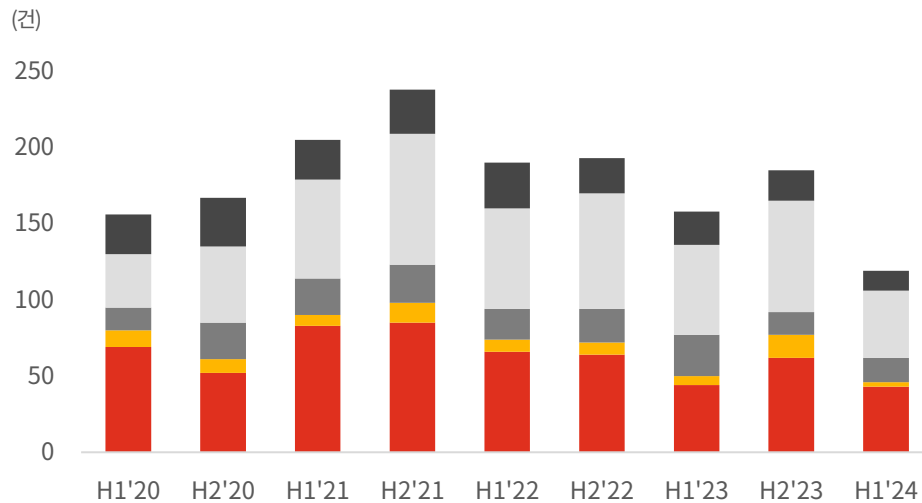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① 소비자재] 2024년 상반기 M&A Review: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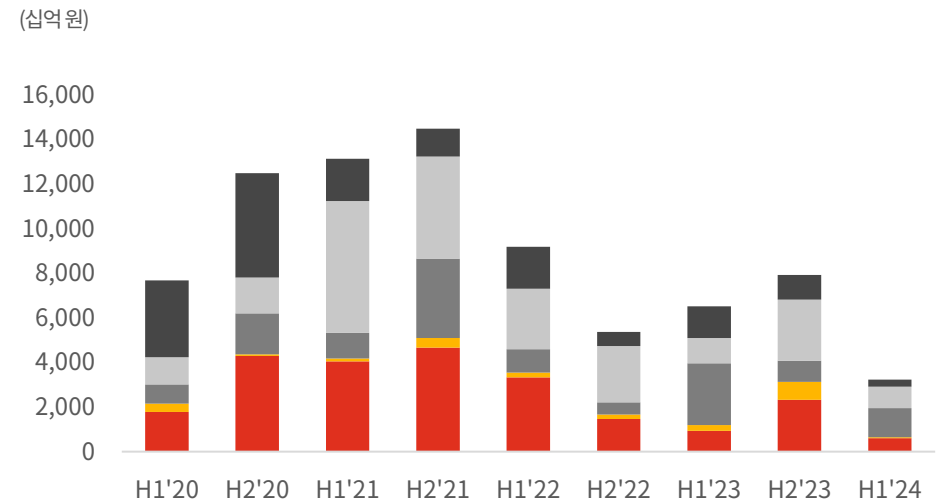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국내 소비자재 M&A 거래건수는 119건(YoY -25%), 거래금액은 3조 2천억 원(YoY -50%)으로,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7%, -24%) 대비 부진
 - 1H'24 글로벌 소비자재 실적(각각 YoY -22%, -4%)과 비교시 건수는 유사, 거래액은 큰 폭으로 감소. 이는 대형 Deal 이 없었던 것이 주요 이유
 - 해당 기간 규모 2천억 이상의 대형 Deal은 2건에 불과: CJ그룹의 올리브영 지분 재매입(7,800억 원), 모건스탠리PE-MSS홀딩스 매각(4천억 원)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제지·포장(-81%), 운송(-78%), 호텔·레저(-53%), 소비자재(-35%), 리테일(-15%)** 순으로 전 영역에서 부진
 - 팬데믹 기간 온라인쇼핑·배송 등의 영역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2년 이후 해당 부문 기업들이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는 분위기
 - 호텔·레저는 1H'19 대비 거래금액이 증가(+159%)한 유일한 섹터. 팬데믹 기간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회복되며, M&A 부문도 정상화

소비자재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건수



거래금액



■ 소비자재 ■ 제지·포장 ■ 호텔·레저 ■ 리테일 ■ 운송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① 소비자] 2024년 하반기 M&A Outlook

- 포트폴리오 재검토는 소비자 업종의 핵심 관심 사항.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분할과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지속될 것

| | |
|--------------------------|---|
| M&A 주요 테마 |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을 매각하여 운영을 간소화하고, 리소스 확보 → 신기술, ESG, 공급망,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지속2. 동일 업종 내 합병 및 연관 업종 인수: 규모의 경제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업종 내 합병. 또한 인접 카테고리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 모색3. 부실기업 M&A: 유명 브랜드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부실 기업 증가 → 브랜드, 지적 재산 및 일부 자산 인수 기회 증가 |
|--------------------------|---|

2024년 하반기 M&A Hotspots

1 건강 및 웰빙

- 건강 및 전문 영양사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지속
- 단백질음료, 비타민 및 영양보충제, 피부관리 등의 사업분야 M&A 증가

2 숙박, 여행 및 레저

- 팬데믹 정상화 이후 여행 및 레저분야에 대한 소비자 지출 증가
- 모바일 확산과 함께 소비자가 여행 서비스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지원 및 기술 분야 투자 증가
-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는 게임과 스포츠 영역의 다양한 거래가 진행될 것

3 패키징

- ESG에 대한 소비자 관심 및 정부 규제 증가 → 패키징 부문에 대한 투자 필요성 증대
- 친환경 패키징 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인수 의향 증가
- 새로운 공급망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 안정화 진행. 이에 따라 향후 패키징 부문의 M&A가 더욱 활발해 질 것

4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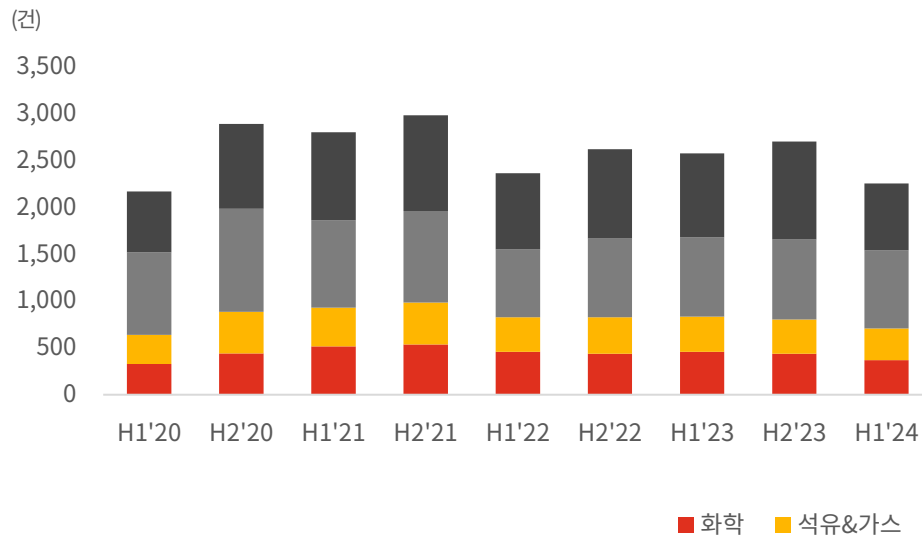
- 대형 소비자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검토 지속. 밸류체인 확장 관점에서, 식재료·계약생산·농업비즈니스 등에 대한 관심
- 반려동물 관련 시장 고성장하며, 투자자들의 인수 의향 증가

[②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4년 상반기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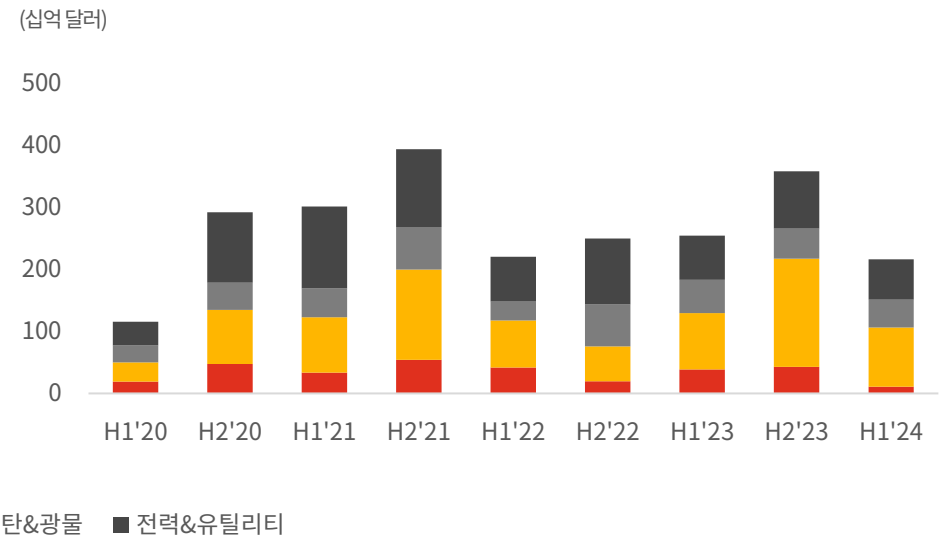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글로벌 에너지·유틸리티·소재(EUR) 부문 M&A 거래건수는 2,249건(YoY -12%), 금액은 2,160억 달러(YoY -15%)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25%, +5%) 대비 거래건수는 양호했으나, 금액은 다소 저조
 -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M&A 실적에도 불구하고, 넷제로 및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지속되고 있어 향후 시장에 대해 긍정적 전망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화학(-71%), 석탄&광물(-17%), 전력&유틸리티(-8%), 석유&가스(+5%) 순으로 변동
 - 팬데믹 이전인 1H'19와 비교시에도 화학은 거래금액이 가장 크게 줄어든 섹터(-88% 감소). 글로벌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화학 수요 감소, 과잉 설비, ESG 규제 강화 등의 이슈로 투자자들 관심 저하되며, M&A 시장에서 비중 감소 (EUR내 화학 비중: '19년 20% → '21년 13% → 1H'19년 5%)
 - 에너지 전환에 대한 각국 정부의 지원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가스 및 전력&유틸리티 분야가 EUR내 Deal을 주도
 - 또한, 무역 전쟁 및 경제블록화 추세로 핵심 광물 확보 위한 경쟁 격화되며 석탄&광물 분야 M&A 활발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건수



거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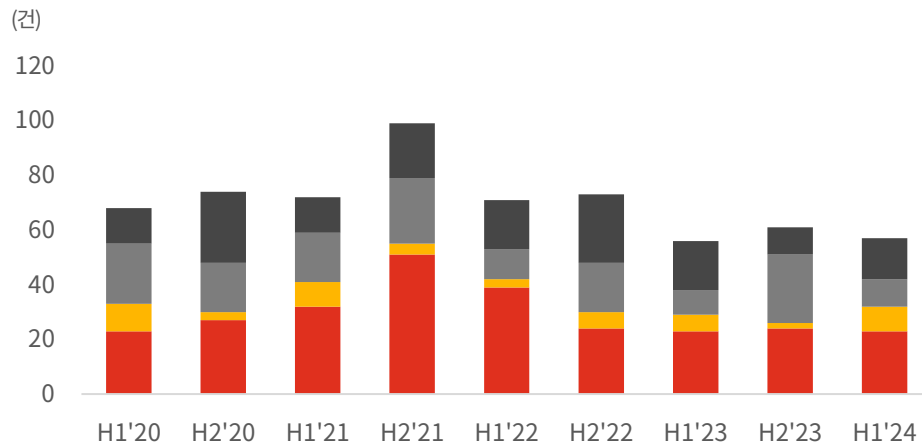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②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4년 상반기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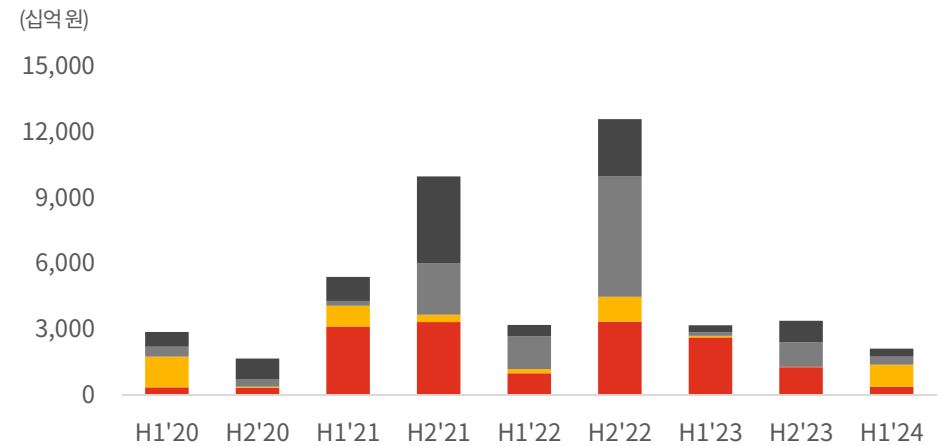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국내 에너지·유틸리티·소재 부문 M&A 건수는 57건(YoY +2%), 금액은 2조 1천억 원(YoY -34%) 기록
 - 한국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7%, -24%) 대비 건수는 양호했으나, 대형 Deal 부재로 금액은 큰 폭 감소
 - 글로벌 EUR 시장(각각 YoY -12%, -15%) 대비로도 금액 부문 저조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화학(-85%)은 감소 vs. 석유&가스(+1095%), 석탄&광물(+136%), 전력&유틸리티(+13%)는 증가
 - 화학은 EUR 섹터 내 유일하게 부진한 업종. 글로벌 화학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실적 감소, 환경규제 등의 이슈가 산재되어 있어 투자심리 위축
 - 석유&가스 부문은 기저효과(1H'23 거래금액 840억원에 불과)와 SK어스온-페루 LNG 지분 매각(3400억)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래금액 크게 증가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건수



거래금액



■ 화학 ■ 석유&가스 ■ 석탄&광물 ■ 전력&유틸리티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②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4년 하반기 M&A Outlook

- 지정학적 위협,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 규제 및 인센티브, ESG 중요성 부각 → M&A 관심 지속

M&A 주요 테마

1. **통합:** 규모의 경제 및 시장 장악력 확대를 위해 사업부간 통합, 동종업종 인수
2. **공급망 안정성:** 공급망을 강화하고, 더 많은 에너지 수요 확보를 위해 업체간 협력 증가
3. **정부 지원·규제:** 각국 정부의 세제 혜택 및 자금 지원책(ex. 미국 IRA, 유럽 그린딜) → 저탄소 인프라 부문(탄소포집, 전기화 등) 투자 증가
4. **포트폴리오 최적화:**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핵심산업 매각 & 신성장 동력 투자

2024년 하반기 M&A Hotspots

1 광업 및 금속

- 필수 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 지속으로 투자자 지속 유입
 - 광산업체·금융사 뿐 아니라 국부펀드와 같은 새로운 투자자 가세
 - 또한, 이종업계(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기업들의 투자 증가
- 시장 장악력 증대를 위해 동종업종 간 합병 지속 증가
- 채굴 부문에서 ESG의 중요성 부각

3 석유·가스

- 각국 정부는 규제 및 인센티브 통해 석유·가스회사의 ESG 투자 확대 유도
→ 기업은 규제 목표치 달성 위해 탄소포집(CCUS)과 디지털 기술에 투자 집중
- LNG 수요 증대로 M&A 관심 지속
 - 유통 프로세스 개선, 사업 시너지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LNG 운송-저장-정제 분야' 내 합병이 계속될 것

2 전력·유틸리티

-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환경 지속으로, 포트폴리오 최적화 위한 사업부 매각 증가
- 재생에너지 분야가 M&A의 주역
 -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수소 및 에너지저장 부문에 대한 투자 증가
- 매수-매도자간의 Valuation갭이 지속되는 점은 M&A의 걸림돌

4 화학

- 비핵심 자산 매각, 공급망 구축, 탈탄소화, 고탄소 배출 사업부 청산, ESG 의무 이행 등이 화학업종 M&A의 주요 동력
- 지역별 M&A 온도차 당분간 지속
 - 미국: 정부의 인센티브(IRA 등), 리쇼어링 움직임, 주요 원자재에 대한 접근 편의성 →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
 - 유럽: 전 세계에서 화학분야 생산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과잉 생산으로 인한 마진 및 가동률 하락 → 유럽 내 화학업체 공장 폐쇄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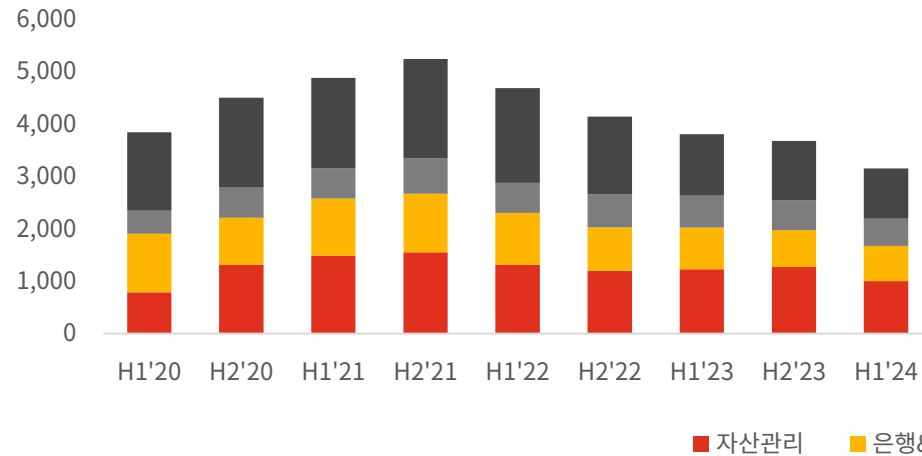
[③ 금융] 2024년 상반기 M&A Trend: Global

- '24년 상반기 금융 부문 M&A 거래건수는 3,152건(YoY -17%), 거래금액은 2,700억 달러(YoY +29%)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25%, +5%) 대비 양호한 수치. 메가딜의 영향으로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거래금액 큰 폭 증가
 - 캐피털원-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 인수(353억 달러), 트루리스트 파이낸셜의 보험부문 매각(126억 달러) 등의 메가딜이 M&A 시장을 주도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부동산(-15%) 부문 감소 vs 자산관리(+80%), 은행&캐피탈(+61%), 보험(+18%)은 증가
 - 자산관리와 보험은 팬데믹 이전인 1H'19와 비교시에도 거래금액이 증가(각각 +131%, +32%)
보험사 장기투자자산의 높은 활용도, 신기술 접목한 자산관리부문의 발전가능성, 보험사 채널 변화 등에 투자자들의 관심 집중
 - 반면, 부동산 부문은 고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수익률 감소, 상업용 부동산 공실 등의 이슈로 M&A 저조
M&A 시장 최대호황기였던 2H'21년 대비 거래금액 78% 감소하며, 금융섹터 내 가장 큰 감소폭 기록

금융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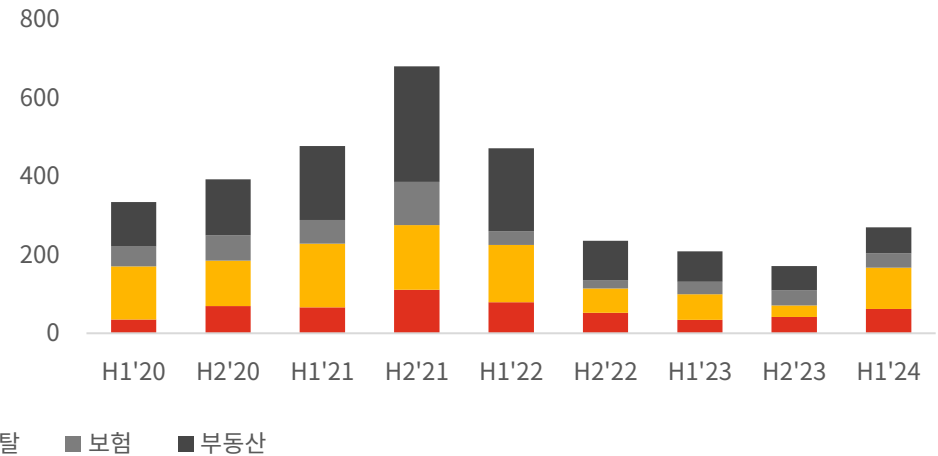
거래건수

(건)



거래금액

(십억 달러)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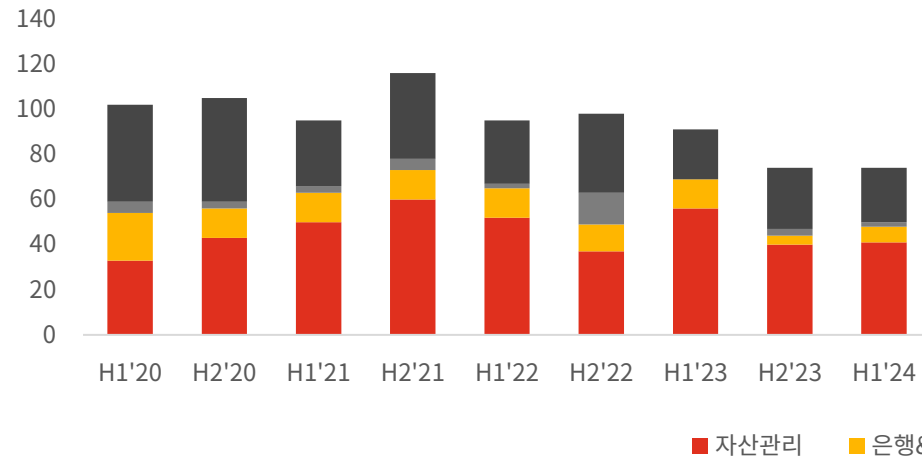
[③ 금융] 2024년 상반기 M&A Trend: 국내

- '23년 상반기 국내 금융 M&A 거래건수는 74건(YoY -19%), 거래금액은 7조 5천억 원(YoY +23%)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7%, -24%) 대비 거래금액 측면에서 선방. 글로벌 금융부문(각각 YoY -17%, +29%) 과 비교시에는 유사한 수준
 - 다만, 섹터 내 최대 규모 Deal인 MBK-지오영홀딩스 인수(2조 원)의 경우, 지오영의 주 사업영역이 의약품 유통인 점 고려시 엄밀한 의미의 금융 M&A라고 볼 수 없음. 해당 부문 제외 시 거래금액은 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수치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은행&캐피탈(-80%)은 감소, 부동산(+256%)은 증가
 -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국내 부동산 Deal이 증가한 점은 눈여겨 볼 필요 있음. 역삼 아크플레이스(7,900억 원), 광화문G타워(2,900억 원), 잠실 시그마타워(1,650억 원) 등의 대형 거래가 다수 성사되며, 하반기 금리 인하와 함께 부동산 투자심리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 집중

금융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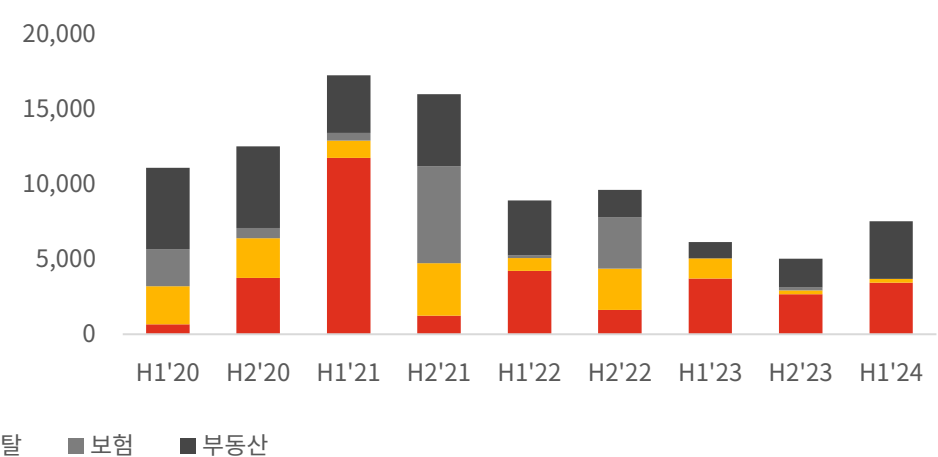
거래건수

(건)



거래금액

(십억 원)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③ 금융] 2024년 하반기 M&A Outlook

- 고금리·지정학적 긴장으로 금융 Deal 부진하지만, 디지털·ESG·인재확보에 대한 압력은 가중 → 매크로 환경 개선시 M&A 큰 폭 회복 전망

M&A 주요 테마

1. **구조조정:** 자본시장의 안정성이 회복되고, 은행의 자본력이 강화됨에 따라, 부실자산(NPL) 및 비핵심자산 매각은 연초 예상 대비 감소 전망
2. **ESG:** 투자 결정시 ESG 요소 반영 → 특정 분야에서 투자를 철회하거나, 포트폴리오 전반의 리스크 요소를 재검토할 가능성 높음
3. **디지털 혁신:** 고객 서비스 부문에 시점목, 데이터 활용 능력 강화, 사이버 보안, 디지털 기반 운영 효율성 증대에 관심
4. **사모펀드:** 보험중개, 플랫폼, 핀테크, 인슈어테크¹⁾, 레그테크²⁾ 등에 관심 집중
 - 1) 인슈어테크(InsurTech):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블록체인 등의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보험산업을 혁신하는 서비스
 - 2) 레그테크(RegTech):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금융 관련 규제를 관리·준수하는 서비스

2024년 하반기 M&A Hotspots

1 은행

- 저성장 및 일부 영역의 포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동종 업계 내 합병 고려 중
 - 합병 시 규제 대응 및 비용 컨트롤에 이점
 - 핀테크와 같은 신규 진입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금 확보에 용이
 - 다만, 규제 및 운영 레거시로 인해 합병 시너지에 대한 눈높이 조절 필요

2 보험

- M&A 시장의 전반적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험부문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황
- 보험업계는 아래 3개 분야에 관심 집중
 - 보험 중개: 세분화된 시장에서 브로커 통합 지속
 - 포트폴리오 최적화: 핵심 상품에 집중하고 운영의 복잡성을 줄이고자, 자본집약적인 생명보험 및 연금사업의 매각 지속
 - 신규 경쟁자 대응: 플랫폼 기업, 빅테크 등 새로운 경쟁자에 대응한 기술 혁신 진행. 이를 위해 인슈어테크와 협력하여 머신러닝 및 AI 분야 기술 획득

3 자산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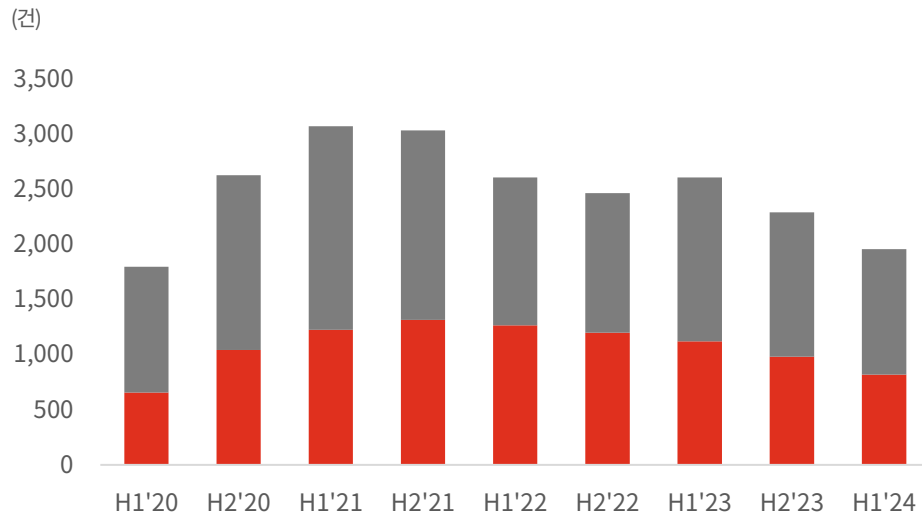
- 자산관리업계는 사업 확장을 위해 다방면에서 M&A를 지속
 - 합병: 지난 5년간 자산관리 업계의 운용수익률과 운용자산(AUM) 감소 → 수익률 증대 뿐 아니라 비용 구조를 최적화 하기 위해, 업종 내 합병 및 전략적 파트너십 모색
 - 기술: 고객별 맞춤형 서비스 및 디지털 네이티브 상품 개발에 주력
 - + 다이렉트 인덱싱³⁾ 및 개별 계좌관리가 기관·고액자산가를 위한 서비스로 부상 → 개별 맞춤 및 최적화 자산관리 관련 기술 투자 진행
 - +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투자자들 위해 디지털 네이티브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지역 확대: GDP 성장률이 높은 인도, 중동 등의 신흥시장 진출
 - 밸류체인 확장: 보험 상품이 보편화되면서, 상품 및 판매채널 측면에서 보험과 자산관리의 융합 진행
- 3) 투자자별 투자철학을 반영해 테마, 업종, 지수 등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

[④ 헬스케어] 2024년 상반기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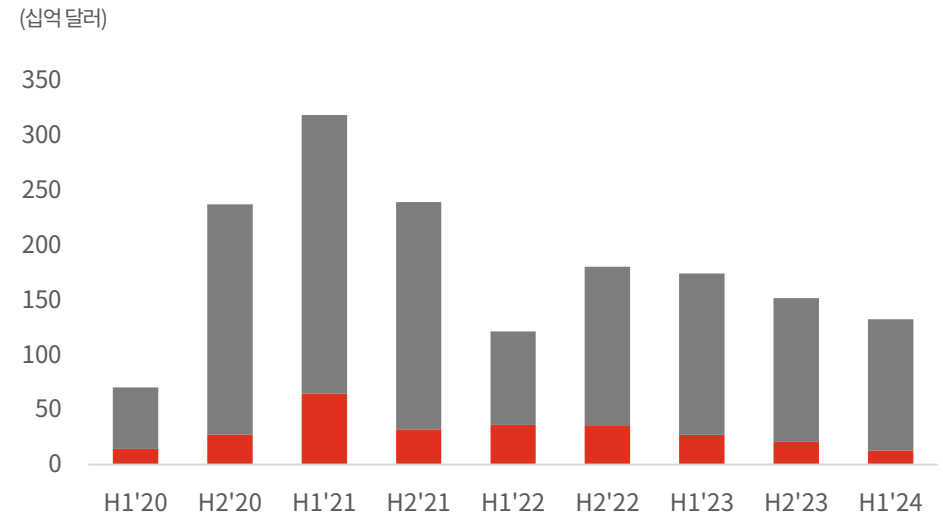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글로벌 헬스케어 M&A 거래건수는 1,958건(YoY -25%), 금액은 1,325억 달러(YoY -24%)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25%, +5%) 대비 금액 측면에서 크게 부진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52%), 제약&생명과학(-19%) 순으로 감소
 - 헬스케어 거래금액 내 90% 수준을 차지하는 제약&생명과학은 소규모 Deal 위주로 M&A 진행
 - + 팬데믹 이전인 1H'19와 비교시에도 거래건수는 증가(+11%)한 반면, 거래금액은 감소(-55%) 하며 Deal Size가 축소
 - + 제약사들의 특허만료 압박에 따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약품 발굴 필요 → 대규모 Deal 보다는 다수의 소형 Deal 선호하는 추세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판단

헬스케어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건수



거래금액



■ 헬스케어 서비스 ■ 제약&생명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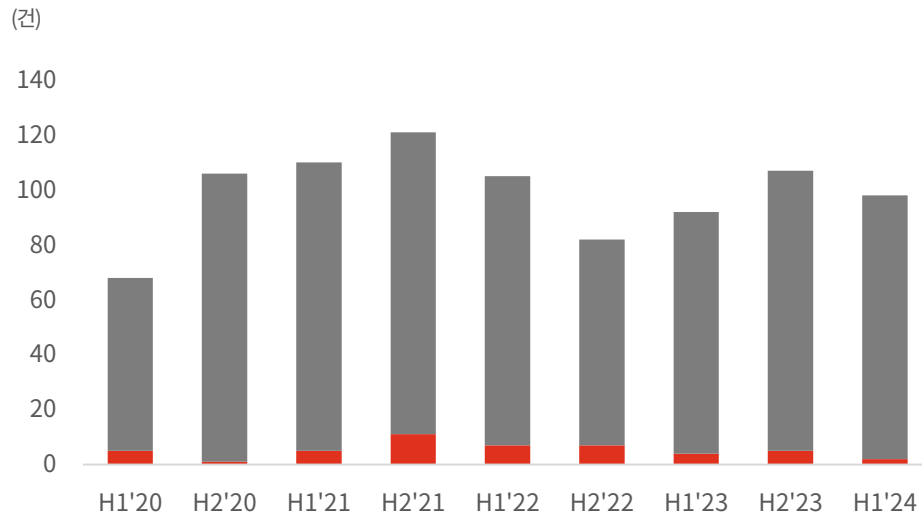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④ 헬스케어] 2024년 상반기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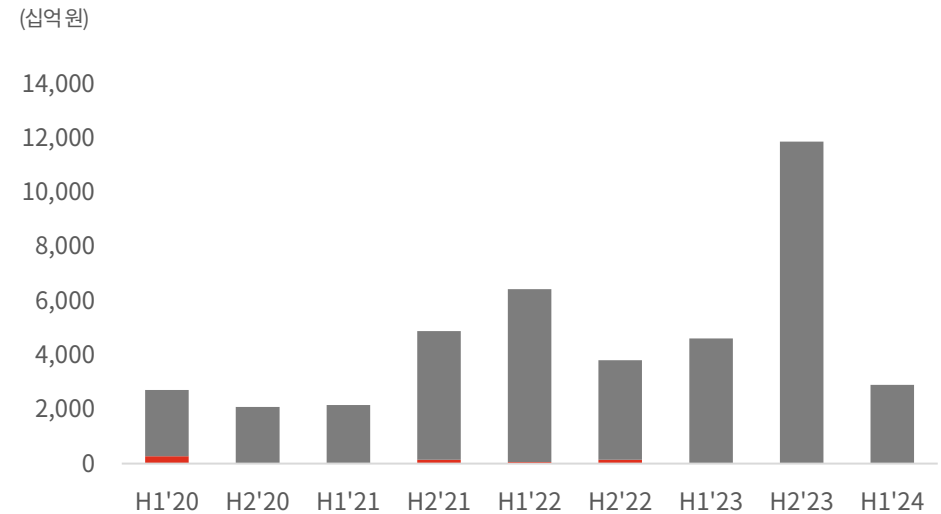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국내 헬스케어 부문 M&A 건수는 98건(YoY +7%), 금액은 2조 9천억 원(YoY -37%)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7%, -24%) 대비 건수는 양호하나, 금액면에서 저조. 이는 소규모 Deal 위주로 M&A가 이루어졌기 때문
 -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각각 YoY -25%, -24%) 대비로도 저조한 실적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100%)는 증가 vs. 제약&생명과학(-37%)은 감소
 - 헬스케어 서비스는 거래금액이 크게 증가(+100%)한 것으로 보이나, 1H'23(60억 원) → 1H'24(120억 원)의 변화로 미미한 수준
 - 제약&생명과학 분야에서는 오리온-레고캠바이오 인수(5,500억 원), 셀트리온의 일부 의약품 사업권 매각(2,500억 원) 등의 대형 Deal이 있었으며, 이 외에는 소형 Deal 위주로 시장이 전개

헬스케어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건수



거래금액



■ 헬스케어 서비스 ■ 제약&생명과학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④ 헬스케어] 2024년 하반기 M&A Outlook

-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비핵심 사업부 매각 + 혁신적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 → 대형 Deal보다는 중소형 위주의 Deal에 주목

M&A
주요 테마

1. **규제:** 의로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리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 당국의 조치 지속
2. **비핵심자산 매각:**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조정 지속
3.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특허 만료에 대비하여, 제약사들은 자체적 R&D 뿐 아니라 바이오테크 인수에도 적극적
4. **세분화된 의료 서비스 분야 관심:** 개인 클리닉, 치과, 동물병원, 시험관 아기, 영양원 등의 세분화된 서비스 영역에 대한 사모펀드의 관심 지속
5. **디지털 기술 투자:**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원격의료, 스마트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수·제휴 의향 증가

2024년 하반기 M&A Hotspots

1 제약 및 생명공학

- **특허 절벽에 대응하여 바이오테크 인수**
 - 대형 제약사들은 몇 년 안에 주력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직면
 - 성장동력 확보 위한 파이프라인 보강 필요 → 중소형 바이오테크 인수 주력
- **포트폴리오 최적화**
 - 비핵심·저성장 자산 매각하여 현금 확보 → 핵심 역량투자에 집중
- **GLP-1* 분야 관심 집중**
 - 약물 원천 기술 뿐 아니라 경구투여 기술·주사제 생산라인 보유 업체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M&A 니즈 증가
 - 당뇨병 및 체중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 심혈관 질환 등에도 적용하기 위해 연구 진행

* 제 2형 당뇨병 치료와 체중감량 촉진에 사용되는 약물

2 헬스케어 서비스

- **디지털 혁신과 AI에 대한 관심**
 -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원격의료, 웨어러블 의료기기 및 소프트웨어 부문 관심
 - AI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성을 모색
- **컨슈머헬스 분야 강세**
 - 고령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등 컨슈머헬스 기업 투자 매력도 상승
 - 특히 대형 제약사에서 최근 분사된 컨슈머헬스 전문기업, 비처방 일반의약품 기업 등은 자체적 성장과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M&A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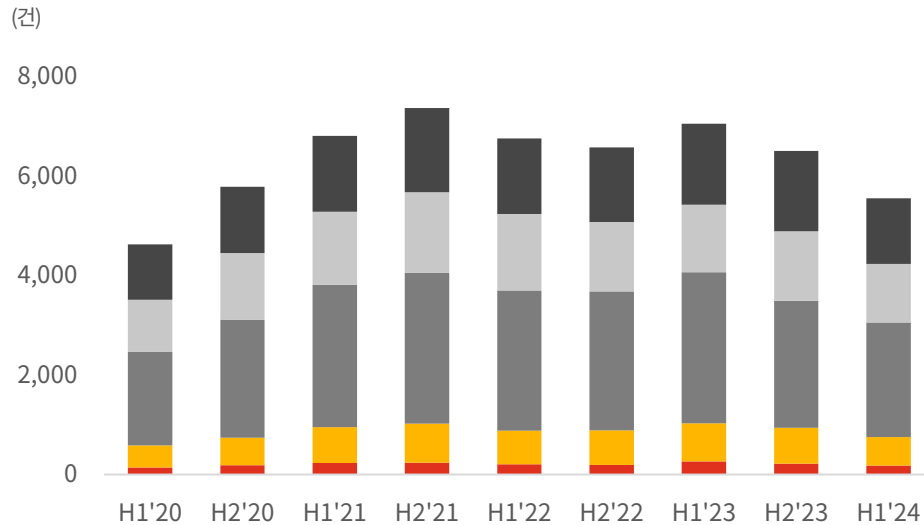
Sources: PwC analysis

[⑤ 산업재 및 자동차] 2024년 상반기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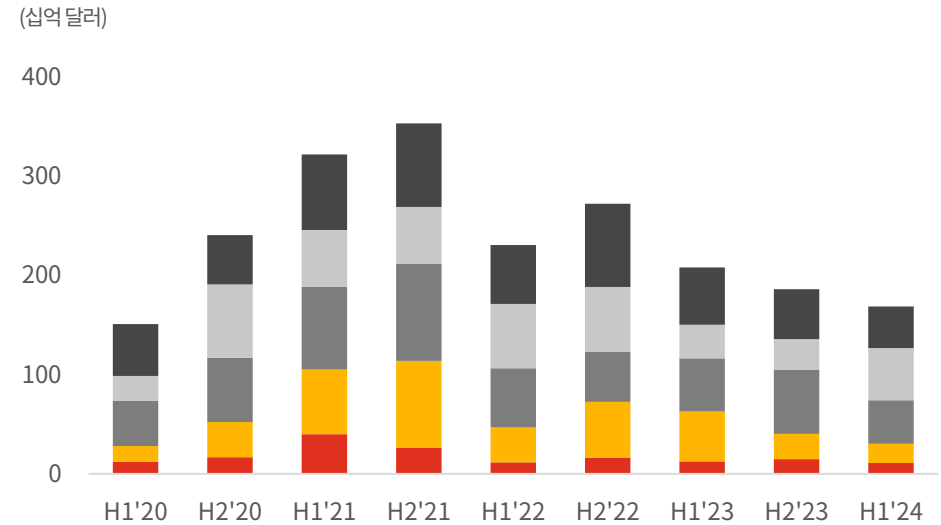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글로벌 산업재 및 자동차의 M&A 거래건수는 5,551건(YoY -21%), 거래금액은 1,690억 달러(YoY -19%)
 - 메가딜 부재로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25%, +5%) 대비 거래금액 부진. 팬데믹 이전인 1H'19와 비교시에도 거래건수는 +5% 증가한 반면 금액은 -52% 감소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자동차(-62%), 제조(-27%), 비즈니스 서비스(-18%), 항공우주&방위(-11%) 감소 vs. 건설&엔지니어링(+54%)은 큰 폭 증가
 - 자동차 부문은 가장 큰 폭으로 거래금액이 감소한 섹터. 친환경차 정책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정치 리스크(선거)가 해소되기 전까지 투자집행을 미루는 움직임
 - 건설&엔지니어링은 세부 섹터 중 유일하게 거래금액이 증가. '22년 이후 고금리 부담으로 투자가 위축되었지만, 리쇼어링 움직임 및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건수



거래금액



■ 항공우주&방위 ■ 자동차 ■ 비즈니스 서비스 ■ 건설&엔지니어링 ■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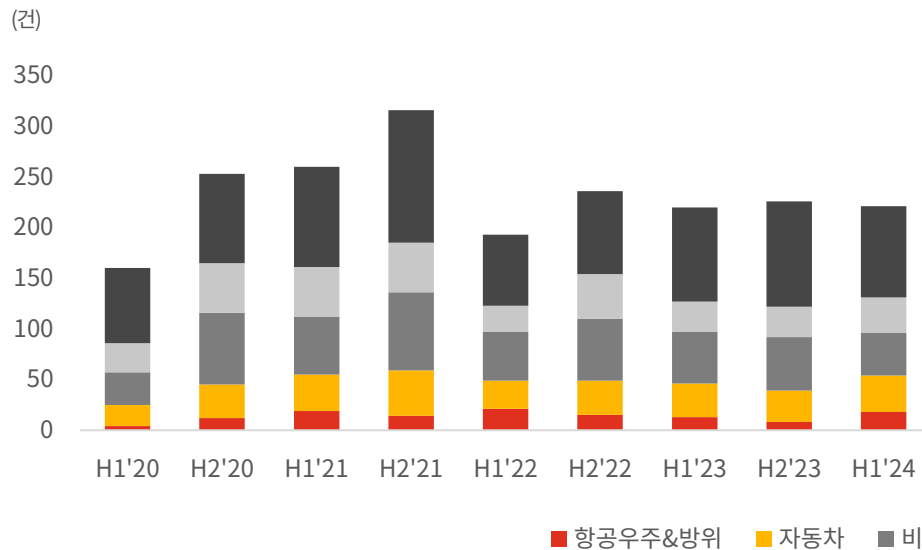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⑤ 산업재 및 자동차] 2024년 상반기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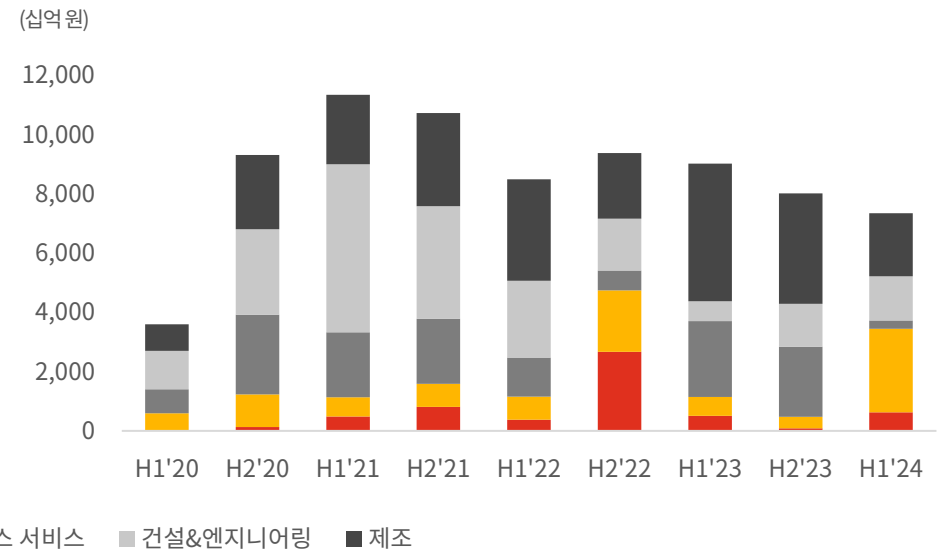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국내 산업재 및 자동차의 M&A 거래건수는 221건(YoY +0.5%), 거래금액은 7조 4천억 원(YoY -19%)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7%, -24%) 대비 거래건수에서 다소 선방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금액 대비 Biz서비스(-89%), 제조(-54%)는 감소 vs. 자동차(+344%), 건설&엔지니어링(+121%), 항공우주&방위(+23%)는 증가
 - 자동차는 한국타이어-한온시스템 인수(1.7조 원), 현대차그룹-모셔널AD 지분확대(1.2조 원) 등의 대형 Deal 영향으로, 거래건수(YoY +9%) 대비 금액(+344%)이 크게 증가
 - 건설&엔지니어링은 '21년 고점 이후 거래량이 가장 급감한 섹터였으나,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투자 심리 개선 움직임
 - 비즈니스 서비스와 제조업은 산업자동화 등의 투자로 인해 '23년에도 투자가 지속되었던 분야.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이연시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분야 M&A가 저조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건수



거래금액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⑤ 산업재 및 자동차] 2024년 하반기 M&A Outlook

- 디지털 혁신, 탄소 감축, 비핵심 자산 매각에 관심. 하반기로 갈수록 선거에 따른 정치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산업재 부문 투자 재개 전망

M&A 주요 테마

1. **신기술 투자:** AI, 자동화, 로봇, 커넥티드, 전기차 관련 기술 투자
2. **포트폴리오 재검토 지속:** 성장동력 확보 위한 인수 vs 자본 배분 최적화 위한 비핵심 자산 매각
3. **업종 내 합병:** 거시경제 및 업종별 특수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간 합병 증가

2024년 하반기 M&A Hotspots

1 항공우주·방위

- 범 지구적 이슈의 해결방안으로 항공우주 부상, 지정학적 긴장 지속되며 국방비 증가 → M&A 활동 촉진
 - 수직 통합 기반 공급망 및 생산능력 확보 움직임 → 중소규모 Deal 증가
 - 통신·물류·운송 부문 투자 & 디지털·AI·머신러닝 기술 확보에 주력
 - 기기 노후화로 항공기 부문 AS마켓 부상
- 공급망 안정성 우선시되며, 국내 생산 증대 및 타 지역과 전략적 제휴 모색

2 자동차

- 미래차로의 전환 vs. 내연기관차 수익성 개선
 - 디지털, SW, 전동화 부문 투자
 - 제조 부문(주로 배터리) 전략적 제휴와 핵심 광물 확보 위한 광산업체 투자
 - 북미 중심으로 내연기관차 수요 지속되며, 관련 업체 통합 가능성 증대
- 포트폴리오 조정: 비필수 자산 매각 지속
- 부실기업 매물 증가 → 사모펀드보다는 기업에서 관심(사업부간 시너지 기대)

3 건설·엔지니어링

- 연말로 갈수록 금리 인하와 정치이벤트(선거)소멸로 건설 투자심리 개선 전망. 다만 상업용 부동산의 회복은 주택 대비 더디게 나타날 것
- 신기술 투자: 설계자동화, 지능형 교통, 전력·통신 전문 기업 인수 관심
- ESG: 건설 과정의 탄소 감축 기술, 건축 폐기물 전문 업체 M&A

4 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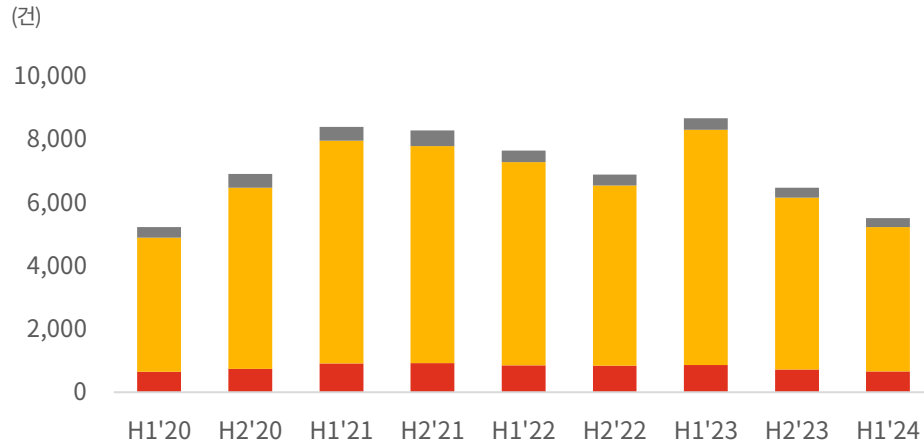
- 포트폴리오 조정: 비핵심 사업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포트폴리오 검토 증가 → 향후 관련 자산의 매물화 전망
- 제조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머신러닝·스마트 팩토리·로봇 투자
- ESG: 바이오폴리머, 재활용 나일론, 섬유 기반 포장재 등 지속가능한 원자재로 전환하는 제조 공정에 대한 관심 증가

[⑥ IT·통신&미디어] 2024년 상반기 M&A Trend: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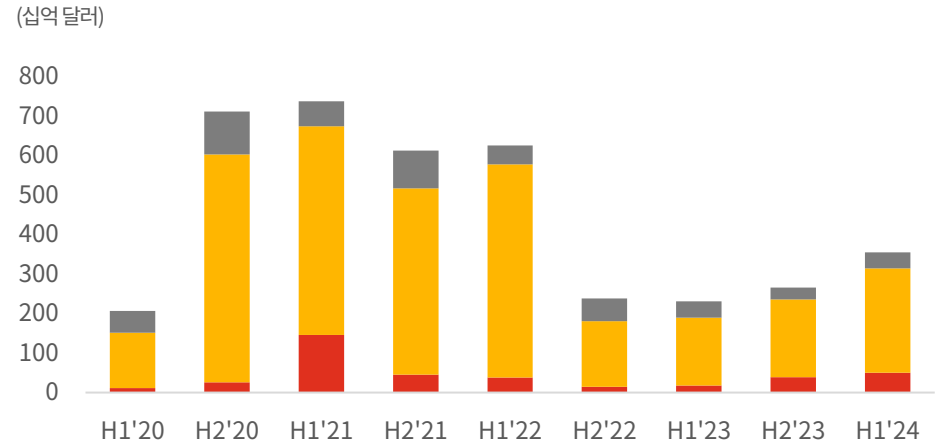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글로벌 IT·통신&미디어 M&A 거래건수는 5,519건(YoY -36%), 거래금액은 3,542억 달러(YoY +54%)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25%, +5%) 대비 거래건수는 부족하나 금액 측면에서는 크게 증가. 팬데믹 이전인 1H'19 대비 시에도 증가(각각 YoY +5%, +15%)
 - IT 기업들이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던 기간을 마치고 Deal을 재개. 또한, 생성형 AI 부상 및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이익 증가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통신(-1%)은 소폭 감소 vs 미디어&엔터테인먼트(+178%), Tech(+54%)는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거래건수는 Tech(-39%), 미디어&엔터테인먼트(-24%), 통신(-19%)로 소규모 Deal보다 메가딜이 시장을 주도
 - + 반도체 설계 능력 강화를 위해 시놉시스-앵시스 인수(325억 달러), AI 기반 네트워크 강화 목적의 휴렛팩커드-주니퍼네트웍스 인수(136억 달러), 영화 제작사 스카이댄스의 파라마운트 미디어 그룹 인수(293억 달러) 등의 메가딜이 진행
 - Tech 섹터 내에서는 Software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1H'24 기준 Tech 거래금액의 64%). 특히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보이는 SaaS(SW as a Service) 모델에 대해 PE들의 선호 지속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건수



거래금액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테크 ■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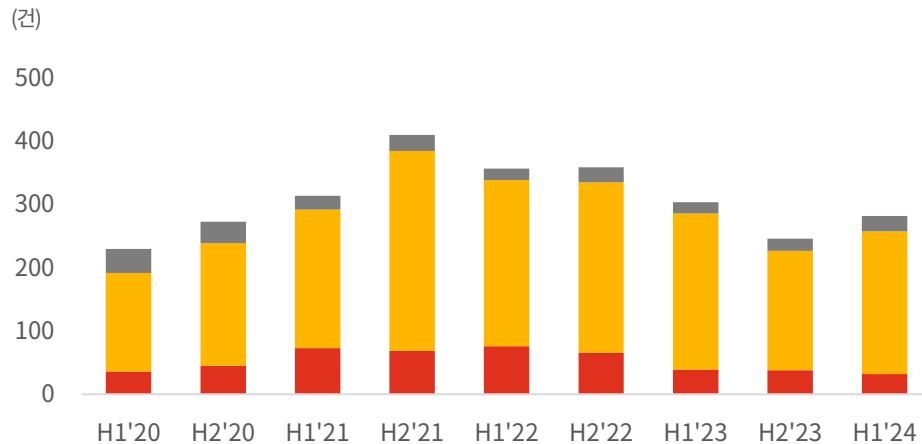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⑥ IT·통신&미디어] 2024년 상반기 M&A Trend: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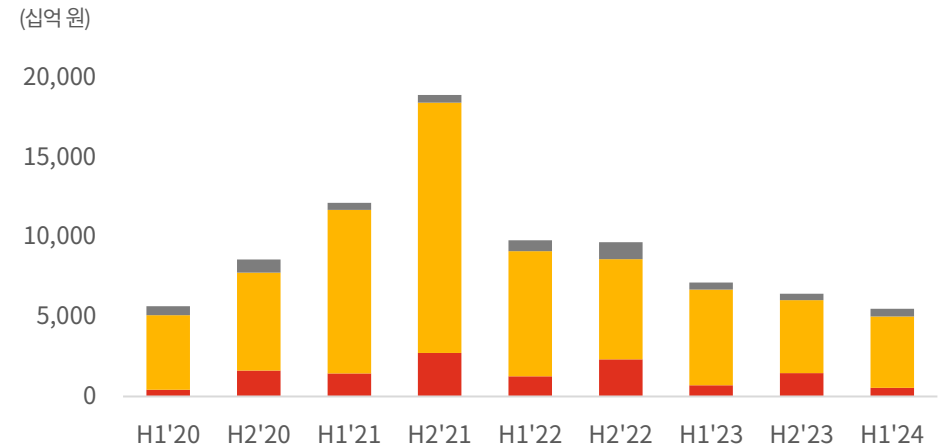
- '24년 상반기 국내 IT·통신&미디어 M&A 거래건수는 282건(YoY -7%), 거래금액은 5조 5천억 원(YoY -23%)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7%, -24%)와 유사한 움직임이며, 글로벌 IT·통신&미디어(각각 YoY -36%, +54%) 비교시에는 거래금액 측면에서 크게 부진
 - 해당 섹터의 메가딜이 미주 지역에 집중됨에 따라 아시아 지역 및 한국의 Deal이 크게 위축
+ 1H'24 대형 Deal은 MBK-커넥트웨이브 지분 인수(2,600억 원), 이테크시스템 투자유치(1,800억 원) 정도에 불과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동기 거래금액 대비 Tech(-25%), 미디어&엔터테인먼트(-24%) 감소 vs. 통신(+7%)은 증가
 - 통신은 건수와 거래금액 (YoY +33%, +7%) 모두 증가하며 다수의 소규모의 Deal이 성사
 - 섹터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ech는 고점인 2H'21 대비 거래량이 71% 감소. 기업들이 AI 등의 신기술에 대해 인수보다 자체 육성을 선호함에 따라 Deal 부진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건수



거래금액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테크 ■ 통신

Sources: LSEG and PwC analysis

[⑥ IT·통신&미디어] 2024년 하반기 M&A Outlook

- **생성형 AI 및 신기술의 발전, 사모펀드의 풍부한 자금 여력, Deal 수요 누적 등으로 M&A 시장 점진적 회복 예상**
- '24년 상반기 IPO와 Tech 분야 메가딜이 순항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긍정적 전망 뒷받침

M&A 주요 테마

1. **매물 적체 해소**: 경기침체 우려 완화, 인플레이션 점진적 안정화, 투자집행을 기다리는 대규모 DryPowder로 M&A 활동 증가
2. **IPO 회복**: 거시경제적 부담, 정부 규제, 미국 대선 등으로 아직까지는 IPO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점진적 회복세
'24년 상반기 대형 IPO 2건* 진행되며, 향후 시장에 대한 기대감 형성 중

*Reddit(8.6억 달러): 소셜 뉴스 집계, 콘텐츠 등급 및 토론 웹 사이트 운영 / Astera Labs(8.2억 달러):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에게 데이터센터 연결 반도체 판매

2024년 하반기 M&A Hotspots

1 소프트웨어

- 안정적인 매출과 현금흐름으로 SW에 대한 관심 지속
 - 특히 PE는 SW 거래의 2/3를 차지하며 시장 주도
- SaaS(Software as a Service: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제공) 비즈니스 성장에 따라 사이버보안 중요성 부각

2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채널 변화 대응
 - 채널 노후화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사업부 구조조정
 - 스트리밍 전쟁 지속, 크로스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가, 개인 미디어와 라이브 이벤트에 대한 소비자 선호를 반영한 M&A 지속
- 광고 부문 성장
 - 스트리밍 서비스 대중화 → 광고가 엔터·미디어 Biz의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
 - 광고기술 벤더와 디지털 마케팅 대행사 등에 대한 관심

3 Tech

- AI: 기업 인수보다는 자체 육성에 초점.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M&A 사례는 많지 않을 것
- 반도체: 각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보호, 국내 위주 투자 증가, 수익성 관리가 우선시되며, M&A는 당분간 소강 상태를 보일 것

4 통신

- 국내 시장 통합: 합작투자·제휴 등을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 및 비용절감 추구
- 국가 간 포트폴리오 최적화: 통신사들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모색함에 따라, 장기 전략과 연계되지 않는 해외 자산 매각

Business Contacts

Deals Leader

민준선 Partner
joon-seon.min@pwc.com

Deals Deputy Leader

류길주 Partner
gil-ju.ryu@pwc.com

헬스케어

윤창범 Partner
chang-beom.yoon@pwc.com

정진송 Partner
jinsong.chung@pwc.com

IT·통신&미디어

최창대 Partner
chang-dae.choi@pwc.com

이도신 Partner
do-shin.lee@pwc.com

홍성표 Partner
sungpyo.hong@pwc.com

산업재 및 자동차

김재운 Partner
jae-un.kim@pwc.com

홍석형 Partner
seok-hyoung.hong@pwc.com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서용태 Partner
yong-tae.seo@pwc.com

한정탁 Partner
jungtak.han@pwc.com

홍진오 Partner
jino.hong@pwc.com

박치홍 Partner
chihong.park@pwc.com

조한준 Partner
han-jun.cho@pwc.com

Deals Platform

류길주 Partner
gil-ju.ryu@pwc.com

탁정수 Partner/Tax
jeongsoo.tak@pwc.com

장병국 Partner/M&A센터
byeong-guk.chang@pwc.com

성낙필 Partner/Private Equity
nack-pil.sung@pwc.com

김용현 Partner/Value Creation
yonghyun.k.kim@pwc.com

소비재

장병국 Partner
byeong-guk.chang@pwc.com

최창윤 Partner
chang-yoon.choi@pwc.com

금융

한정섭 Partner
jeong-seob.han@pwc.com

김기은 Partner
gee-eun.kim@pwc.com

Business Turnaround

이규대 Partner
kyoo-dae.lee@pwc.com

김홍동 Partner
hong-dong.kim@pwc.com

Author Contacts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sunjoo.oh@pwc.com

강수정 연구원
sujeong.j.kang@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408W-RP-047

© 202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